강릉원주대신문

창 간 | 강릉대신문 1979년 6월 30일 / 원주대학신문 1991년 9월 17일
재창간 | 강릉원주대신문 2009년 4월 13일
발행인 | 이선우 주간교수 | 김두현 편집인 | 김혜미

THE GANGNEUNG-WONJU NATIONAL UNIVERSITY PRESS 2024년 3월 13일 수요일 102호

2면 대학
확대되는 다전공 장학금 제도
방학에는 현지에서 즐겁게 어학생활을!

3면 사회
시나미강릉, 연극을 통한 삶의 변화
우리들의 친구! 반려동물을 위한 혜택
반갑지 않은 손님, 강릉시 대설주의보

5면 보도
대통령과 함께 이야기하는 청년의 미래
무심코 지나치지만 당연하지 않은 일, 환경미화

6면 인터뷰
강원대학교 신문사와 소통하다
동계청소년올림픽의 숨은 조력자들

7면 특집기사
새롭게 시작하는 2024년, 변화하는 강릉원주대



▲코다이라 나오(왼쪽), 이상화(오른쪽), 두 스피드 스케이트 금메달 리스트가 강원 2024 마스코트 “뭉초”와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김동주



▲피겨스케이팅 김유성 선수가 플라잉 체인지 풋 콤비네이션 스핀 자세를 선보이고 있다. 사진=IOC



▲리틀 김연아로 화제인 피겨 스케이팅 신지아 선수가 은메달을 차지했다. 사진=IOC

2018 평창 올림픽의 영광 다시, 전 세계 청소년들의 스포츠 향연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개최국인 우리나라의 태극기가 2023년 1월 19일 평창돔과 강릉 스피드스케이트장 게양대에 올라가며 대회 시작을 알렸다. 사진=김동주



▲튀니지 출신 조나단 로리미 봅슬레이 선수가 24일 메인프레스센터에서 2018평창기념재단 드림프로그램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김동주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가 2018 평창의 유산을 바탕으로 평창, 강릉, 횡성, 정선에서 1월 19일부터 2월 1일까지 79개국 15,000여 명(선수 1,900명) 참여로 진행되었다. 우리 대학은 출전하는 선수들을 위하여 학생 생활관과 스포츠 콤플렉스 시설을 선수촌 숙소 및 훈련시설로 제공했다. 이어 운영 인력 식당으로 환경 개선 공사를 마친 학생식당을 제공했다.

특히 이번 대회는 김연아 선수, 이상화 선수, 코다이라 나오 선수, 이동욱 배우 등 유명인들이 현장을 찾아 이목을 끌기도 했다. 이상화 선수는 자원봉사자, 올림픽 관계자 외 많은 사람들의 사인 세례 속에서 전 세계 참가 청소년들을 응원한다고 밝혔고, 김연아 선수도 KB와 함께하는 강원 2024 올림피언 콘서트에서 “경기에 앞서 완벽하게 경기하는 장면을 머릿속에 그리면 긴장되고 불안한 마음을 해소할 수 있다.”라며 후배들에게 조언했다.

강릉 아레나, 하키센터 경기장은 구름 관중

대회 초부터 강릉 지역 우천과 평창 지역에서 폭설 등으로 기상이 악화되면서 관람객 다수가 경기를 보지 못하거나, 취소되는 일도 있었다. 그래서 올림픽 조직위는 현장 발권을 확대하고 기존 티켓에 대한 재입장을 허가하면서 관람을 도왔다. 그 결과 피겨 스케이팅 경기에는 연일 1만 2천여 명 이상의 관중이 참여했다. 1월 30일 하키센터는 8천3백 명 관객이 찾아오면서 주중 최고 기록을 세웠다.

수많은 관심과 응원의 열기 속에 우리나라 아이스하키 여자 선수들이 1월 26일 은메달을 획득했고, 남성 싱글 피겨 스케이팅 김현겸 선수의 1월 30일 금메달을 시작으로 여성 싱글 피겨 스케이팅 신지아 선수가 1월 31일 은메달을 획득했다. 이러한 성과를 축하하는 관중들의 박수 소리가 경기장 곳곳에 퍼져나갔다.

최신 디지털 기술을 통해 온라인·메타버스 경기 중계

이번 동계청소년올림픽은 최신 디지털 기술을 체험해 볼 수 있었는데, 동계청소년올림픽의 모든 경기는 올림픽스닷컴(Olympics.com)을 통해 실시간으로 중계되었다. 또한, 대회 개막식은 평창과 강릉 2개 도시에서 동시에 진행되었는데, 윤석열 대통령의 평창 개회 선언을 강릉 스피드스케이트장에서도 스크린을 통해 지켜볼 수 있었다.

올림픽 위원회(IOC)는 “이번 경기 중계는 대한민국의 선진 디지털 기술의 덕택을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AI를 통해 경기 중계를 자동화하였는데, AI를 사용하게 되면 경기에서 선수들의 움직임, 남은 이동 거리 등을 분석하여 알려준다.”라고 밝혔다.

올림픽을 통해 “한류” 전 세계에 확산

아울러, 2018 평창 올림픽의 유산이라고 할 수 있는 올림픽 경기 시설 대부분을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에서 활용되었다. 그리고 이번 대회에서 K-한류의 위력을 찾아볼 수 있었다. 경기장 내에 한식, 한복, 붓글씨, 널뛰기 등 우리 전통 문화를 체험해 볼 수 있는 체험 시설이 갖추어져 있었다.

“고마워요. 한국!” 외국 선수들의 감사 인사 이어져

조나단 로리미(17세, 튀니지, 봅슬레이 모노) 선수는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고국에 있는 친구들도 자신처럼 동계청소년올림픽을 통해 선수의 꿈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전하고 싶다면서 이번 대회에서 은메달을 받을 수 있게 많은 도움을 준 “2018평창기념재단과 드림 프로그램에 감사하다.”라고 말했다. 또, 대회에 참가한 선수와 코치 등이 인스타그램을 통해 소감을 밝혔는데, 많은 이들 중에서 가카우치 하루 선수(일본, 피겨스케이팅)는 “스케이팅 조정을 위해 동분서주한 이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다.”라고 말했다.

김동주 기자

확대되는 다전공 장학금 제도, 다전공에 도전 해보세요

다전공을 이수하는 학생들에게 지급되는 장학금은 2017년 시행된 이래 형태 등이 바뀌며 지금까지 점차 확대되고 있다.

처음 추진된 다전공 이수 장학금의 지급은 공모전의 형태로 이루어졌다. 다전공 이수 과정에서 발생하는 어려움 극복 및 효과에 대해 공유함과 동시에 다전공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 유도가 그 목적이었다. 지급 대상도 최우수 1명, 우수 2명, 장려 3명을 수상해 합계 6명에 그칠 정도로 규모가 작았다. 이후 다전공 이수자 학습지원금이 장학금의 형태로 바뀌어 재개된 것은 2020년 1월이다. 지급 대상 조건은 지금과 유사하게 공지되었으나 여전히 총 15명을 정원으로 소수에게만 기회가 주어졌다. 이어 2021년 1월의 공고된 지급 인원은 16명이었으며, 2022년도에는 24명, 2023년도에는 33명이 다전공 장학생으로 선발되었다.

이처럼 꾸준히 증가 추세를 보이는 것은 대상 인원뿐이 아니다. 대상자에게 지급되는 장학 금액의 규모 또한 증가해 왔다. 복수전공 1인당 장학금은 2021년도까지 11만 원 수준이었으나, 2022학년도부터 20만 원으로 증액되었다.

다전공 수혜자에게 물었다

이승진 학우(국어국문학과 21학번)는 인문학 외에 경영 경제에 대한 견문을 넓히고 싶어 복수전공으로 경영학과를 택하였다. 다전공이 필수사항은 아니지만 대학에 다니는 동안 한 번쯤은 다른 학과에 관한 공부도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다전공 장학금은 "올해 1월 10일, 학과 공지 단체 메신저에 올라온 신청 안내 글을 보고 신청하게 되었다."라고 답했다. 이어 다전공 장학금 대상자로 선발된 소감을 묻자, "다전공을 하는 와중에도 잘하고 있는 건지 스스로 의문이 들 때도 많았는데, 장학금 혜택을 받고 나서 잘하고 있다는 확신과 동시에 자신감을 많이 얻은 것 같다."라며 감사의 뜻을 표했다.

증가하는 다전공 이수자 인원

우리 대학에서 다전공 장학금 증액에 적극적인 이유는 학생들의 다전공 수요 증가에 있다. 4차 산업혁명 등 사회·산업 변화로 융복합 인재를 원하는 시대상에 따라 전공 외의 지식을 습득하려는 학생들이 많아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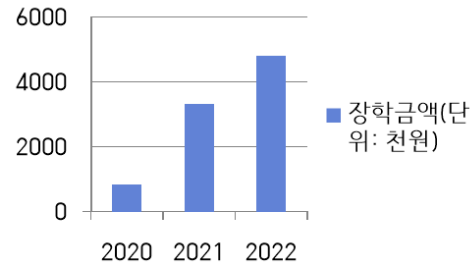
재학생에 대한 다전공의 참여 비율을 참고해 보아도 그 수가 점진적으로 늘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이에 발맞춰 교육혁신과에서도 다전공제도를 학생들에게 독려하고 있다. 학사 정보 게시판에 다전공제도 활성화를 위한 학사 정보 가이드를 공지하고, 또한 매해 다전공제도 운영에 대한 점검과 개선을 위한 다전공 만족도 조사도 실시 중이다. 실제로 2022년도 다전공 만족도 조사에서는 매우 그렇다 35.6%, 그렇다 49.3%로 만족 비율이 총 84.9%의 비율로 집계되었다.

올해 2월에도 23년도에 대한 다전공 만족도 조사를 진행하며, 학생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한편, 다전공은 1년에 2회, 6월과 12월에 신청 및 포기가 가능하다. 교육혁신과에서는 "많은 신청 바란다."라며 열려있는 기회를 학생들에게 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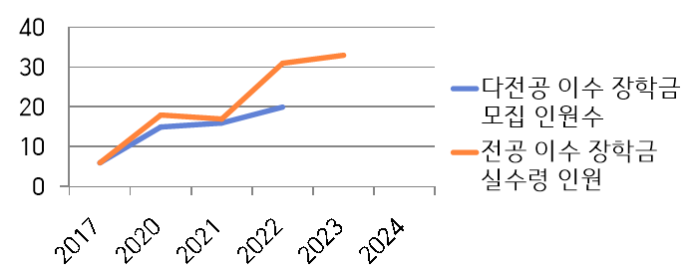
황보민경 기자

구분	2020	2021	2022	2023	비고
총 재학생 수	7,279	6,845	6,773	6,743	2028년 목표 참여비율 10%
참여학생 수	206	251	314	345	
다전공 참여 비율(%)	2.83	3.67	4.64	5.15	

장학금 증액 추이



다전공 이수자 대상 장학금 수혜자 추이



방학에는 현지에서 즐겁게 어학생활을!



▲2020년 1월 괌 대학교(University of Guam) 캠퍼스에서의 단기어학연수 학생들의 모습이다. 사진=국제교류원



▲필리핀에서 스쿠버 다이빙을 즐기는 정건우 학생의 모습이다. 사진= 정건우

우리 대학은 하계 및 동계방학을 활용하여 해외자매대학으로 단기 어학연수단을 파견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지난 동계방학에는 ▲중국(하얼빈공업대학), ▲캐나다(빅토리아대학), ▲필리핀(데나살아라네타대학)에 각 어학연수단이 파견되었다. 중국에서는 작년 12월 26일부터 1월 20일까지, 캐나다에서는 1월 5일부터 2월 4일까지, 필리핀에서는 1월 20일부터 2월 17일까지의 일정으로 한 달 남짓의 기간 동안 연수를 진행했다.

필리핀에서 보낸 한 달

교내 단기 어학연수제도를 신청한 정건우 학우(해양생태환경학과 20학번)는 동계방학 중 한 달간 필리핀에서 생활했다. 어학연수 프로그램은 ▲1대1영문법·스피킹 수업 ▲에세이 쓰기 ▲단체 듣기 수업 ▲문화·사회·이슈에 대한 수업으로 구성되어 진행되었다. 연수 프로그램 중에는 수업도 과제도 전부 영문으로만 진행되어 단기간에 어학 실력이 향상될 수 있도록 편성되어 있었다. 어학연수 프로그램의 또 다른 장점은 타국 문화체험 및 체험활동이다. 필리핀 단기어학연수 기간 중에는 마닐라, 팍상한 폭포, 민도르에 방문하여 미술관 관람 뿐 아니라 스노클링과 같은 특별한 경험도 가능했다.

정건우 학우는 '스노클링, 수상레저, 스쿠버다이빙 활동 중에 스노클링 활동을 가장 추천한다. 필리핀의 아름다운 바다와 다양한 해양생물을 보고 다시 한 번 바다를 사랑하게 되었다.'며 체험수기에 밝혔다. 아울러 현지인들과 필리핀의 인기 스포츠인 농구를 했던 이야기, 현지인과 함께 기숙사에서 생활했던 이야기 등 솔직한 소감을 적었다. 그 밖의 다양한 학생들의 체험수기는 국제교류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체험수기에는 단기 어학연수 중 필요한 물건, 현지생활에 대한 힌트에 대해 상세하게 적혀 있다. 단기 어학연수 프로그램 참여를 고려하고 있다면 확인해보는 것이 좋다.

선발부터 기획까지

단기 어학연수의 선발부터 기획까지의 이야기를 국제교류원의 대학 교류협력 업무를 하는 윤성훈 담당 직원에게 물었다. "선발은 영어권 같은 경우 토익이나 영어 공인 성적이 있으면 유리하다. 다만 서류 심사 시에 학점이 70%, 어학성적이 30% 반영되기 때문에 증명할 어학 성적이 없더라도 학점에서 좋은 결과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선발 기준을 설명하였다. 어떤 목표를 기획되는 프로그램인지에 대해서도 답변을 구했다. "단기 어학연수는 한 달 동안 진행되지만, 학생들이 어학 성적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마인드와 능력을 함양해 주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사실 한 달이라는 기간에 언어를 완벽히 습득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 때문에 현지인과의 회화에 자신감을 붙이고, 견문을 통해 문화적 소양을 익히는 것에 초점을 두고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있다."라고 답변했다. 이어 "지금은 캐나다, 필리핀 그리고 중국에 학생들을 파견하고 있다. 올해부터 단기 어학연수 파견 국가를 추가하는 등의 확대를 논의 중이다."라며 긍정적인 전망을 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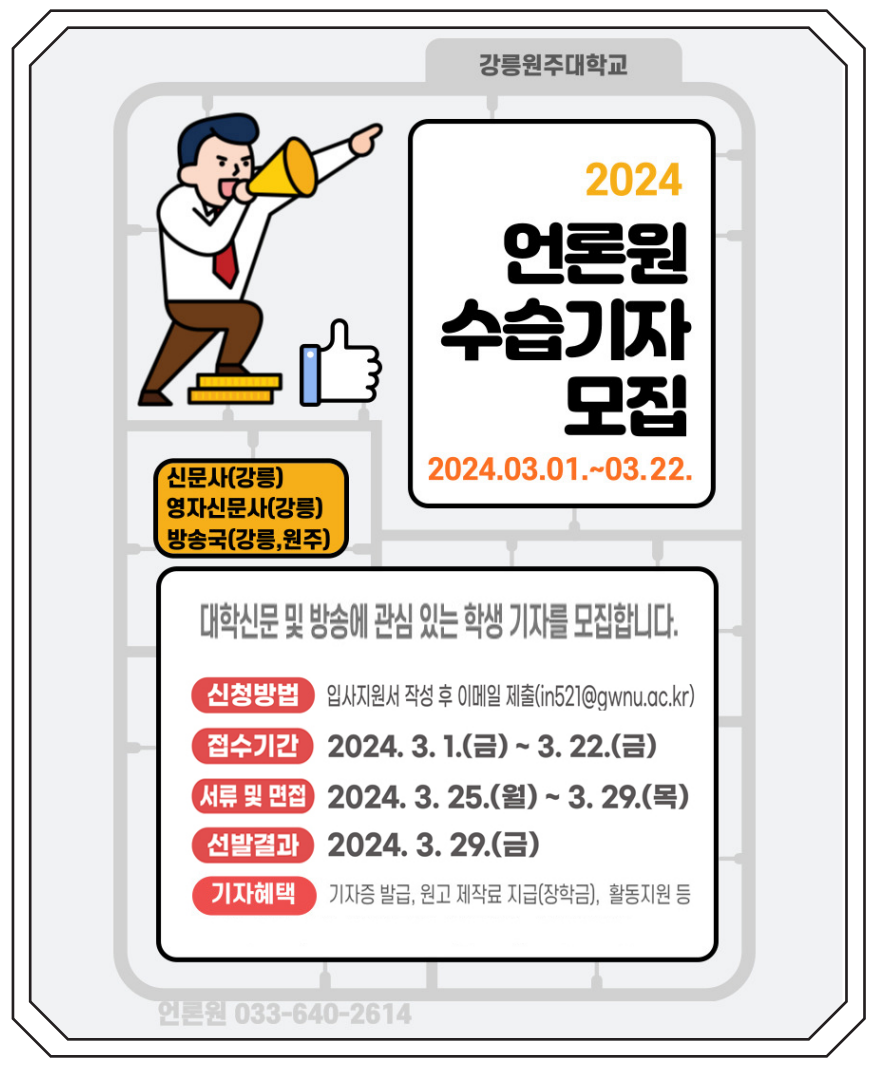
한 번쯤, 단기 어학연수가 해보고 싶다면

단기 어학연수는 교환학생과 달리 연수 기간이 짧고, 전공 적합성의 관계보다 외국어 능력 향상이 주요 목적이기 때문에 부담이 적다. 또 단기간 어학 능력 향상과 타국의 문화를 체험하기에 좋은 기회라는 장점이 있다.

지원자격은 본교 2학기 이상 등록한 학부 재학생으로 까다롭지 않다. 다만 단과대학별, 학과별 인원 수에 따라 평점 평균이 높은 학생, 강릉원주대학 국제교류원의 지원으로 해외에 파견된 실적이 없는 학생이 우선하여 선발된다.

모집공고는 하계 방학이 3~4월, 동계방학이 9~10월 중에 게시된다. 다음 방학을 현지에서 알차게 보내고자 한다면, 우리 대학 국제교류원 홈페이지를 수시로 확인해야 한다.

황보민경 기자



시나미강릉, 연극을 통한 삶의 변화와 지역 문화 발전

평범한 일상을 벗어나 생동적인 경험을 하고 싶은 사람에게 전문 강사가 무료로 연극을 지도하는 프로그램이 있다. 강릉문화재단 산하기관인 시나미강릉에서 진행 중인 연극학교이다. 현재는 2024년 1월부터 3월까지 연극학교 심화 과정이 진행되고 있다.

연극학교에서는 평소 일반 시민이 접하기 어려운 연극이라는 분야에 대해 배우며 무대에 오르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연기가 처음이어도, 연극을 잘 알지 못해도 연극 활동에 열정과 의지만 있다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본 기자도 무료한 일상을 탈피하기 위해 지난해 하반기 "연극학교 3기" 과정에 참여하여 직접 무대에 올랐던 경험이 있다. '나'를 돌아보고 '나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며 답답한 일상을 벗어날 수 있는 기회이다.

한편, 참가자들이 연극학교를 통해 어떤 삶의 변화가 있었는지 심화 과정 참가자인 신장미씨를 인터뷰하였다.

Q. 연극학교를 통해 얻은 가장 큰 것은 무엇인가요?

A. 삶입니다. 지루한 일상에 활기를 불어온 삶. 사람과 사람들이 만나서 함께 만들어 나가는 공동체의 삶. 재미있게 살아갈 수 있는 기회들을 가장 크게 얻은 것 같아요.

Q. 연극학교 수료자를 대상으로 연극학교 심화 과정을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기존의 과정과 큰 차이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A. 기본 과정과 가장 다른 점은 표현의 다양성이 많다는 것을 깨닫는 시간인 것 같아요. 기본 과정에서는 나의 움직임과 말로 하는 표현을 배워나갔다면 심화 과정에서는 더 나아가 춤과 노래까지 가미된 뮤지컬 형식의 연극을 진행하다 보니 확실히 표현이 더 많아졌다고 생각해요.

Q. 이번 심화 과정 지원 동기가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세요.

A. 기본 과정이 너무 좋았습니다. 수업 과정부터 공연까지 모든 것들이 너무 좋은 기억으로 남아서 심화 과정도 지원하게 되었어요. 게다가 저의 삶을 재밌게 만들어주는 매개체라고 생각해서 큰 고민 없이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Q. 이번 심화 과정을 통해 어떠한 점이 가장 기대가 되나요?

A. '음치, 박치인 내가 얼마나 나아졌을까?' 하는 궁금증의 해결? 이라고 생각해요.

Q. 본인이 맡은 배역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아직 배역이 없다면 원하는 배역이 있나요?

A. 이번 배역은 정신병원에 봉사하러 온 봉사자입니다. 힘든 삶을 살다가 뭐라도 해보겠다는 심정으로 봉사를 처음 시작하는 과정에서 겪는 당황스러움과 무서움 등의 감정들을 표현하게 돼요.

Q. 연극학교에 참가하고 싶지만, 용기가 나지 않아 지원하기를 망설이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망설이는 분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려요.

A. 제가 성인이 되면서 가장 많이 했던 생각이 '나중에 돈 많이 벌어서 여유로울 때 하자' 였습니다. 여행이든, 취미든 일단 돈이 있어야지 할 수 있다는 생각들로 인해 성인이 되어서 돈을 벌기에만 바쁘게 살았어요. 어느 순간 지나간 내 시간이 후회되더라고요. 그때 저희 언니가 이런 말을 했어요 "뭔가를 하려고 할 때 '돈 없다', '시간 없다' 하면 죽을 때까지 못 한다.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아가도 더 힘들거나 하진 않으니까 그냥 해" 맞는 이야기 같아요. 시간과 돈은 어떻게 쓰든 없어지고, 하면 어떻게든 시간은 만들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에게 투자하자는 생각이 컸습니다. 여러분도 그냥 지금 해보세요. 어떻게든 됩니다!

참가자와의 인터뷰를 통해 연극학교는 개인에게 삶의 활력을 불어넣어 주는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외에도 강릉문화재단은 다양한 방식으로 시민들을 지원하고 있다. 다양한 문화 경험을 육성하고 증진하겠다는 비전을 갖고 설립된 재단은 지역의 문화경관을 형성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다양한 계획과 프로그램을 통해 예술적 표현, 지역사회 참여의 중심지가 되어가는 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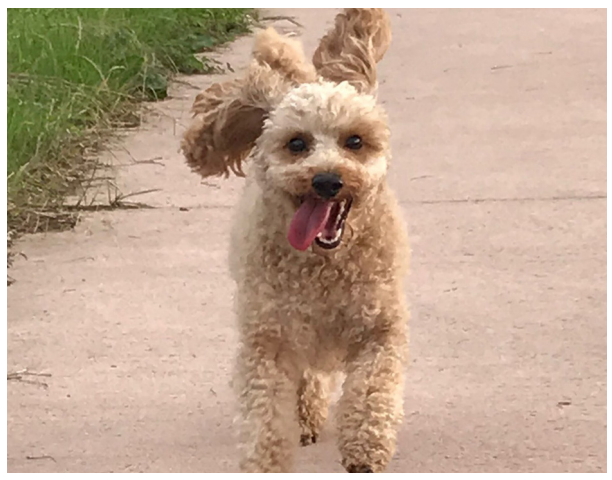
강릉문화재단은 연중 주최하는 다양한 문화축제와 행사를 조직함으로써 지역 주민과 관광객을 유치 중이다. 행사들은 강릉의 풍부한 문화유산을 전시하며, 전통 공연, 미술 전시회, 미식 행사 등 다양한 내용을 담고 있다. 주목할 만한 축제로는 강릉 와인 축제와 강릉 커피 축제가 있다.

그뿐만 아니라 "시나미"라는 잡지를 발행하여 강릉의 문화유산, 현대 예술 풍경 및 지역 이야기를 탐구하고 문서화하는 플랫폼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 잡지는 통찰력 있는 기사, 인터뷰 및 특집을 통해 강릉의 문화 정체성에 대한 깊은 이해를 촉진한다.

문화재단의 핵심 가치는 지역사회 참여에 있다. 연극학교처럼 지역 주민들을 문화 활동, 워크숍 및 교육 프로그램에 적극 참여시켜, 도시 문화유산에 대한 자부심을 육성한다. 지루한 일상을 탈피하고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기회로써 연극학교 혹은 문화재단에서 주최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참여하길 권해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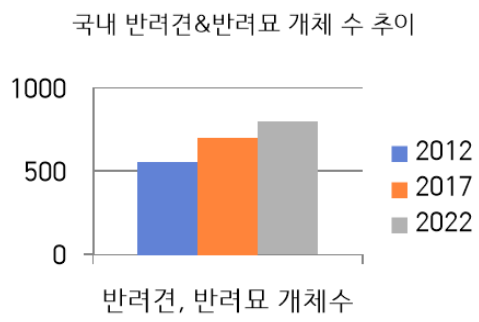
전재강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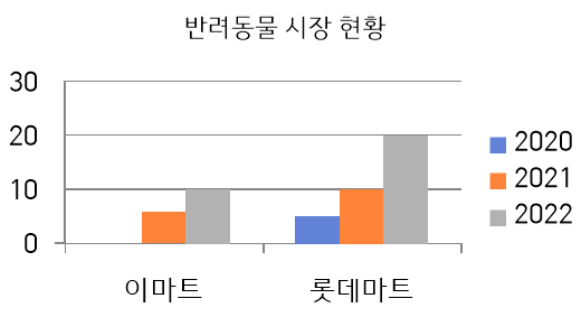
우리들의 친구! 반려동물을 위한 혜택



▲유다훈 학우가 기르는 반려견 감자이다.

사진=유다훈





'딩펫족'과 '혼펫족' 이라는 단어를 들어 본 적이 있는가? 최근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와 사람들이 늘어남에 따라 생긴 신조어다. 이들은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는 대신 그에 대한 외로움을 반려동물로 달래고 있다. 대형마트를 가도 육아용품보다는 반려동물용품이 더 많고, 반려동물과 관련된 다양한 상품도 많이 나오는 추세이다. 이제 반려동물도 가족으로써 배우자나 자녀를 대신하는 것이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가 늘어남에 따라 정부 지원을 통해 다양한 사업이 확대되었다. 그중 강릉시에서 추진하는 사업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광견병 예방 접종'이다. 광견병 예방 접종은 5월과 11월에 약 한 달간 시행하며. 접종 대상은 동물 등록을 한 3개월 이상의 반려동물이다. 접종 장소는 강릉시 내 동물병원 11곳과 읍면동 주민센터이다. 다만 주민센터에서는 무료로 예방 접종을 해 주는 반면에 관내 동물병원에서는 5천원의 개인 부담금을 내야 한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강릉시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반려동물을 기르고 있는 사람들의 후기를 들어보기 위해 '광견병 예방 접종' 사업을 지원받은 경험이 있는 유다훈 학우(건설환경공학과 19학번)를 만나보았다. 유다훈 학우는 "반려동물은 보험이 따로 없어 비용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데 이러한 정책들 덕분에 양육비에 대한 부담감을 크게 느끼지 않아 좋았다."라고 말했다. 또한, 반려동물을 위한 새로운 지원 사업에 관한 질문에는 "심장사상충약과 주사를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 심장사상충약은 해외에서 직접 구매해야 하는 까닭에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강릉시에서는 광견병 예방 접종 이외에도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 사업을 시행했다. 강릉시에 거주하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100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단 용품 구입비와 동물 등록비는 지원이 불가하니 이 점은 주의해야 한다. 4월부터 지원 대상 100명을 달성할 때까지이며, 100명을 전부 채우면 조기 마감이 된다. 신청서류는 총 5개가 있으며, 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신청서 양식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강릉시뿐만 아니라 서울특별시, 대전광역시, 경기도 등 전국 지자체에서 반려동물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지원한다. 대전광역시는 올해 2월부터 3월까지 약 한 달간 반려동물을 위한 의료비를 지원했다. 대상은 대전 서구에 거주 중인 경제적 · 신체적 취약계층이다. 반려동물 진료금액의 80%를 환급해주고, 20만 원의 지원금도 제공했다. 서울시에서도 '우리 동네 동물병원' 제도를 통해 취약계층의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과 경기도 역시 최대 20만 원까지의 의료비를 제공했다.

김도현 기자

반갑지 않은 손님, 강릉시 대설주의보



▲눈으로 인해 도로가 통제된 윤승한 학우의 집 앞 모습이다. 사진=윤승한

강릉시가 하얗게 변했다. 2월 21일 저녁부터 내리기 시작한 눈은 곧 강릉 전체를 뒤덮었다. 기상청에 따르면 21일 강원도 적설량은 70cm로 이는 평균 15일 누적 강설량을 웃도는 수치이다. 이미 강릉시는 성산과 향로봉에 각각 60.8cm, 67.7cm의 적설량을 보였음에도, 기상청은 앞으로 30cm의 눈이 추가로 더 쌓일 전망이라고 내다보았다.

이에 강릉시는 새벽부터 제설 작업에 착수하여 염화칼슘을 뿌리고 제설기를 이용하는 등 빠르게 도로에 쌓인 눈을 치워 나갔다. 그러나 눈발은 점점 더 거세졌고 결국 제설 작업은 눈이 쌓이는 속도를 못 따라갔다. 그나마 도로는 제설기가 열심히 돌아다닌 덕분에 원활해졌지만, 사람이 지나는 길은 원활하지 못한 제설로 다시 금방 쌓이는 형태가 되었다. 결국 폭설로 인한 피해가 곳곳에서 발생했다.

다음날 교통이 마비되어 지각하거나 출근하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하기도 했고, 미처 눈을 못 치운 곳은 보행자가 지나다니지 못했다. 가장 심각한 것은 눈으로 인해 나무가 쓰러지는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었다. 우리 대학에 다니는 윤승한 학우(국어국문학과 19학번)도 "집 앞의 나무가 무너져 도로가 통제되는 바람에 본래 5분 거리의 편의점을 돌아서 가는 불편함을 겪었다."라고 말했다. 또한, 강원 산간 지역에서는 눈 때문에 집 안에 고립되는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다. 이날 폭설로 인해 강릉시는 30여 대의 시내버스가 결행되거나 단축 운행했고, 40건이 넘는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한편 우리 대학은 2월 22일 예정대로 졸업식을 진행했다. 폭설로 인해 강릉시 전체가 눈으로 뒤덮여 멀리서 오는 가족들은 이동하는 것에 불편함을 겪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하얀 눈밭에서 가족 친구들과 함께 찍은 사진은 졸업생들에게 잊을 수 없는 추억이 되었을 것이다.

김도현 기자

사 설

학교를 바꾸기 위한 발걸음

2023학년도 총학생회 선거는 〈백야〉의 후보자 등록 취소로 인해 〈고백〉의 단독 후보 출마로 치러졌다. 하지만 2021년 이후 이례적인 투표율 미달로 인하여 총학생회를 선출해 내지 못하면서 비상대책위원회가 구성되었다. 우선 총학생회 선거 개표를 위해서는 "50% 이상의 투표율"을 달성해야지만 개표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작년 선거에서 투표율이 "47%"밖에 되지 않아서 개표조차 하지 못하고 최종 무산되었다. 또한, 선거 운동 기간에 진행된 네거티브 전은 학생들의 피로감을 가중하는 결과만 초래했다. 이로써 총학생회의 부재로 학생들의 입장을 제대로 대변할 수 없을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었다.

최근 학생 사회에서 학생 자치에 대한 전체적인 관심이 줄어들고 있다. 그 원인으로 학생들이 생계를 위해서 취업을 해야 하지만, 취직은 점점 어려워지고, 진로 고민이나 휴학 등 복잡한 여러 상황을 고민하다 보니 학생 자치는 뒷전이 되어 가는 것이다. 이러한 동태는 비단 우리 대학만의 일은 아닐 것이다. 대표적인 학생 자치기구인 총학생회는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 선출하여 대학생의 권익을 옹호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학생들이 사회인으로서 본격적인 출발에 앞서, 대의제 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총학생회 선거를 통해 민주적 시민으로의 자질을 배양한다는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점에서 총학생회가 가지는 의미가 아주 크다고 보인다.

우리 대학이 2023년 11월 13일 강원대학교와 함께 "글로컬30사업"에 선정되면서, 대학 간 통합이 확정되었다. 이처럼 학교의 외연이 확장되어 가는 상황에 학내에서 학우들의 여론을 형성하는 데 총학생회의 역할과 권한이 크다고 판단된다. 하지만 비상대책위원회가 총학생회의 빈자리를 대신하면서, '학우들의 상황을 대변하고, 학내 여론을 제대로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인가'에 물음표를 던지게 된다. 따라서 이번 갑진년 신입생들이 꿈꾸는 대학 생활의 낭만이 존재하겠다. 그러나 만약 2024학년도에도 정상적인 총학생회가 출범할 수 없다면, 우리가 당연히 누려야 할 각종 혜택이 축소될 수 있고, 학생대표기관의 부존재는 학생 권익을 제대로 보호할 수 없다. 그러므로 학생 권익 신장과 건강한 학내 여론 형성을 원한다면 총학생회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이 매우 필요하다. 학생들의 참여와 관심을 끌어내기 위해서는 선거 후보자 입·후보를 독려하고, 후보자들은 진실성 있는 공약을 제시하며 이행 의지까지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 아울러 대동제 진행뿐만 아니라 총학생회의 권한을 확대하여, 실질적이고 정책적인 측면에서의 변화를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 학우들이 학생 자치활동을 통해 학교가 변하고 있음을 제대로 체감할 수 있다면, 작금의 무관심한 실태가 앞으로는 나아질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해 본다.

마지막으로 다가올 3월 27일에 진행될 예정인 2024학년도 총학생회, 총대의원회 선거에서 학생들의 적극적인 입·후보와 선거를 통하여 총학생회와 총대의원회를 정상적으로 출범하고 학생들을 위한 업무가 시작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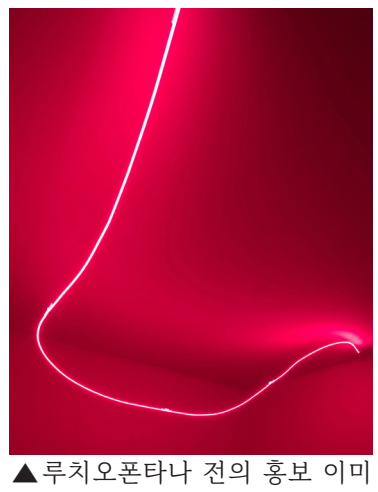
솔올미술관, 도시예술의 품격을 더하다



▲세계적인 유명 건축가 리처드 마이어의 작품인 솔올미술관의 전경이다. 사진=솔올미술관

강릉시의 새로운 공공 미술관인 솔올미술관이 올해 2월 14일 개관했다.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원대로 45에 자리 잡고 있는 솔올미술관은 개관 전부터 세계적인 거장 리처드 마이어(Richard Meier)의 새로운 건축 작품으로서 많은 기대를 모았다. 그 이름 '솔올'도 미술관이 자리한 지역의 옛 이름으로' 소나무가 많은 고을'을 뜻한다.

솔올미술관은 문화 예술의 가치를 공유하고 미술에 대한 시민의 접근성을 높이고자 다양한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있다. 어린이, 청소년, 성인 등 대상별 이해와 특성을 반영한 교육 프로그램부터 국내외 문화예술기관들과 협력하여 다양한 문화행사를 진행될 예정이다. 그밖에 국내외 다양한 미술관 및 미술 관계기관과 소통하며 학술적 연구를 바탕으로 전시를 기획할 것임을 밝혔다.



▲루치오폰타나 전의 홍보 이미지. 루치오폰타나 공간주의 미술 세계관을 보여준다. 사진=솔올미술관

이번 개관전으로 초대된 〈루치오 폰타나: 공간·기다림〉 전에서는 현대 미술의 거장 루치오 폰타나의 공간주의를 소개한다. 폰타나의 네온 공간설치 작업 6점이 아시아 미술관에서 소개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 외에도 대표작과 공간 연작을 포함하여 총 27점의 작품이 전시되었다. 한국 미술과 세계 미술의 미학적 연결성을 찾아내려는 이번 전시 기획 의도와 걸맞게 곽인식의 작품을 두 번째 개관작으로 채택했다.

〈In Dialog: 곽인식〉 전에서는 일상적인 재료의 특성을 탐구하며 물질의 미학을 보여준다.

이번 'In Dialog' 프로젝트를 통해 관객들은 문화적, 역사적 배경이 다른 동시대 두 미술가의 미술 작품의 소통 만나볼 수 있다.

솔올미술관은 하절기인 5월부터 10월까지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 동절기인 11월부터 4월까지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된다. 관람료는 1만 원이며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인 문화가 있는 날에는 무료로 관람이 가능하다. 이미 관광지로서 많은 입소문이 난 하슬라아트월드 외에도 명주예술마당, 강릉아트센터, 강릉시립미술관에 이어 새로운 공공예술기관 솔올미술관이 예술 도시 강릉으로 거듭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황보민경 기자

강릉대도호부관아, 고려와 조선의 역사적 유산을 만나다

강릉대도호부관아는 강릉문화재야행 및 문화유산 미디어아트 행사 등 다양한 행사를 주최하여 시민들에게 잘 알려져 있다. 오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관아의 아름다움을 다채로운 조명과 조각을 통해 표현하였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강릉대도호부관아는 지역 축제의 중심지로 주목받고 있다.

그렇다면 이 장소는 처음에 어떤 목적으로 지어졌을까? 관아의 사전적 정의는 정부 관료가 정부 사무를 처리하는 건물이다. 이를 '관서'라고도 하며, 순우리말로는 '마을'이라고도 한다.

강릉대도호부관아는 고려 시대부터 조선 시대까지 강릉을 방문한 중앙 관리들이 머무르던 건물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83개의 방을 갖춘 건물이 있었다고 하지만, 지금은 국보 제 51호인 임영관 삼문만이 남아 있다.



▲옛 흔적이 돋보이는 임영관 삼문의 모습이다.

이 건물은 고려 시대 건물 중 오늘날까지 남아있는 건물 중 하나이며, 공민왕이 직접 쓴 '임영관'이라는 각판이 있었다고 한다. 본 기자가 직접 찾아가 보았다. 돌담과 기와를 따라 걷던 중 정문인 아문이 나타났다. 아문에 들어가자 중문이 나타났다. 옛 시대로 들어서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 중문 앞에 바닥에 수 놓인 판석은 공간을 더욱 풍부하게 만들어주었다.

별당과 동헌은 의운루 옆에 위치하고 있다. 이곳은 전통 한옥의 아름다움을 충분히 경험할 수 있는 건물이다. 임영관의 세 문을 통과한 후에는 중대청이 나타나고, 그 뒤에는 전대청, 서헌, 동대청이 나타난다. 중대청 건물의 목적은 불분명하지만, 동대청과 서헌은 특사 및 중앙 관리들을 위한 숙박, 연회 및 행사용으로 사용되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곡선미가 돋보이는 대도호부관아 아문의 모습이다.

다시 돌아서면 의운루를 볼 수 있다. 의운루를 오르면 강릉의 유명한 벚꽃 명소인 남산을 볼 수 있다. 이것은 우리 조상들이 건축물과 자연의 조화에 큰 중요성을 두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의운루에 오르면 남산을 조망할 수 있게 설계되어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그 다음, 칠사당으로 가면 수령이 580년 된 은행나무를 볼 수 있다. 친구, 가족들과 함께 은행나무를 볼 수 있도록 근처엔 나무 의자가 조성되어 있다. 다시 아문을 통해 나와 돌담길을 따라 걸었다.



▲수령 580년 은행나무의 모습이 하늘과 어우러져 인상적이다.

대도호부관아는 고려와 조선 시대의 정부 건물의 유적을 연구하는 데 중요한 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는 중요한 문화유산지로 밝혀졌다고 한다. 또한, 조선 시대의 『임영지』 기록을 통해 이 유적의 중요성과 옛 강릉의 역사와 문화를 알리는 데 중요한 유물로 평가된다고도 하였다.

그러나 과거 일본 식민 지배 기간에 많은 건물이 파괴되었다. 우리는 그 시대의 맥락 속에서 우리의 유산을 보호하지 못했다. 현재는 어떠할까? 우리의 관심 밖에 놓여 잊고 있진 않은지 생각해 봐야 한다. 우리가 계속 관심을 기울여야만 우리의 문화 자산을 보호할 수 있다.

관심은 가까운 문화재에 방문함으로써 시작된다. 주말에 연인, 가족, 친구와 함께 대도호부관아를 방문하길 추천해 본다.

전재강 기자











▲1월 19일 윤석열 대통령과 우리 학교 학생들이 청년의 미래에 대해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사진=대통령실

대통령과 함께 이야기하는 청년의 미래

우리 대학과 가톨릭관동대 학생 15명은 윤석열 대통령,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장상윤 사회수석·황상무 시민사회수석 등 대통령실 참모진과 함께하는 '청년과의 대화' 행사에 참여하였다. 행사는 지난 1월 19일 강릉시의 '허씨커피'에서 케이크와 음료를 마시며 편한 분위기 아래 진행되었다. '허씨커피'는 가톨릭관동대 졸업생이 운영하는 카페로, 지난해 4월 강릉 산불이 났을 당시 소방대원들에게 무료 커피와 쉼터를 제공해 준 곳이기도 하다.

이날 '청년과의 대화' 행사는 지역 대학인 국립 강릉원주대학교 및 가톨릭관동대학교 학생들과 윤석열 대통령의 격의 없는 소통을 위해 마련됐다. 학생들은 ▲진로, 취업 및 창업 ▲학자금 및 주거생활 지원 ▲지역사회 및 지역 대학의 발전 ▲소외된 학문 분야 지원 확대 ▲공공기관 이전을 통한 지역 일자리 확대 등 청년들의 공통적인 고민을 이야기하였다. 우리 대학을 대표하여 참석한 학생들은 강원도 지방 청년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역할로서 발언한 것이다. 본 기자도 강릉원주대 학생이자 신문사 편집국장으로서 '대통령과의 만남'이라는 흔치 않은 경험을 준비하고 성공적으로 끝내게 되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청년들의 의견을 잘 새겨듣고 빠르게 정부 정책에 적극 반영하겠다. 청년들이 마음껏 도전하고 그 도전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격려의 말을 건넸다. 교육부 장관과 행정안전부 장관은 학생들의 발언을 메모하며, 천원의 아침밥 사업 방학 중 운영 등 여러 사안의 정책 반영 가능성과 생활비 지원 장학금 확대에 대한 구체적인 실현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렇듯 '청년과의 대화'는 평소 학생들이 어려움을 겪어왔던 부분을 정책 담당자들과 터놓고 공유하는 자리가 마련됐다는 자체로 의미 있고 뜻깊은 시간이 되었다.

대통령과의 만남에 가장 심혈을 기울여 준비하고, 학생들을 격려했던 학생성공지원과 김지영 진로취창업지원팀장의 이야기도 들어보았다. "참석하는 학생들과 부서 직원들에게조차 당일까지 대통령 행사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알릴 수가 없었다. 부서 직원들은 뉴스 보도로 소식를 알게 되어 배신감을 느꼈다고 해서 많이 웃었던 기억이 난다. 또한, 학생 선발 과정에선 지역 청년들을 대표하여 다양한 주제에 대한 의견을 전달하기 위한 자리이기 때문에 학생회 임원진들과 진로에 고민이 많은 학생, 그리고 인문사회, 자연과학, 공학, 예술체육 전공 학생까지 두루두루 참여할 수 있도록 선발하였다."라고 행사 준비 과정에 대해 밝혔다.

'청년과의 대화'에 대표로 나선 학생들에게는 "먼 길 마다하지 않고 달려와서 지역 청년들을 대표하여 대학 생활과 진로, 취업과 창업, 학자금과 주거, 생활 지원, 지역대학 발전 등의 다양한 주제에 대해 자기 의견을 피력하여 주어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한다. 그리고 행사 종료 후 웃음꽃이 활짝 피던 학생들의 모습과 만족스러운 표정은 지금도 잊지 못할 만큼 많이 자랑스러웠다. 대학 생활을 하면서 대통령과 대화하는 자리에 참여하는 경험을 갖는 분들이 많지 않을 텐데 여러분들에게 좋은 에피소드로 포트폴리오에 소중히 담기길 바란다. 또한, 어떤 상황에서도 위축되지 않고 당당하고 자신감 있는 모습으로 모든 일을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이 되기를 바란다."라며 따뜻한 격려와 응원을 전했다.

아울러 2024년 새로운 학기의 시작을 맞은 우리 대학 학생들에게는 "학생성공지원과에서 우리 학생들의 무궁무진한 가능성과 잠재력을 펼칠 수 있도록 올해 '커리어로드맵 공모전', '자기소개서 공모전', '모의면접 경진대회', '직무·기업분석 경진대회' 등을 개최할 계획이다. 자신의 진로와 취업 분야에 대한 다양한 성과물들을 통해 성공 역량을 재고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할 예정이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며 다양한 기회의 장이 제공될 예정임을 알렸다. 앞으로도 청년들이 본인 앞에 놓인 기회에 최선을 다하며, 소신과 담대한 소통을 통해 원하는 미래를 만들어나가길 희망한다.

김혜미 기자

무심코 지나치지만 당연하지 않은 일, 환경미화



▲솔향관 환경미화를 담당하는 차영란 직원이다. 사진=김혜미

우리 학생들이 늘 청결한 기숙사를 쓰고 있는 건 당연한 일은 아닐 것이다. 학생들을 위한 공간을 만들기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늘 바쁘게 움직이는 솔향관 미화 담당 차영란 직원을 만나 이야기를 나눠보았다.

Q. 맡은 업무 내용은 어떻게 되시나요?

A. 솔향관 가·나동 전체적인 청소를 맡고 있다. 쓰레기도 치우고 화장실, 복도, 체력 단련실, 가·나동 계단, 세탁실, 독서실 모두 한다고 보면 된다. 혼자서 모든 일을 하다 보니 일이 조금 벅차고 힘든 건 사실이다. 그렇다고 두 명이 하기에는 애매한 부분이 있다. 사임당관과 율곡관은 크기가 더 크다 보니 3명이 나눠서 하고 있다. 기숙사 퇴소 시에는 다른 관 미화 직원들과 함께 치우기도 한다.

Q. 근로 일정과 휴게시간에 대해 자세히 들어볼 수 있을까요?

A. 주 5일, 9시부터 16시 20분까지 점심시간 2시간 빼고 5시간 반 하는 거다. 월차는 휴가 개념이 아니라 보험을 제외한 하루 수당으로 준다. 휴게 시설로는 직원 휴게실이 따로 잘 되어 있어서 불편함 없이 지내고 있다.

Q. 맡은 업무 중에 가장 힘들거나 고됐던 업무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A. 아무래도 쓰레기 넣는 게 제일 힘들다. 월요일에 출근하면 주말에 쌓인 쓰레기 때문에 100L짜리 쓰레기봉투 12개 정도가 나온다. 그래도 솔향관은 분리수거는 잘 되는 편이긴 하지만, 조금 더 바라는 점이라면 음식물이 묻은 컵라면 용기는 일반쓰레기로 버리는 것, 박스 분리수거에 좀 더 신경 써주는 것 정도이다.

Q. 일을 하면서 보람찼던 순간이 있을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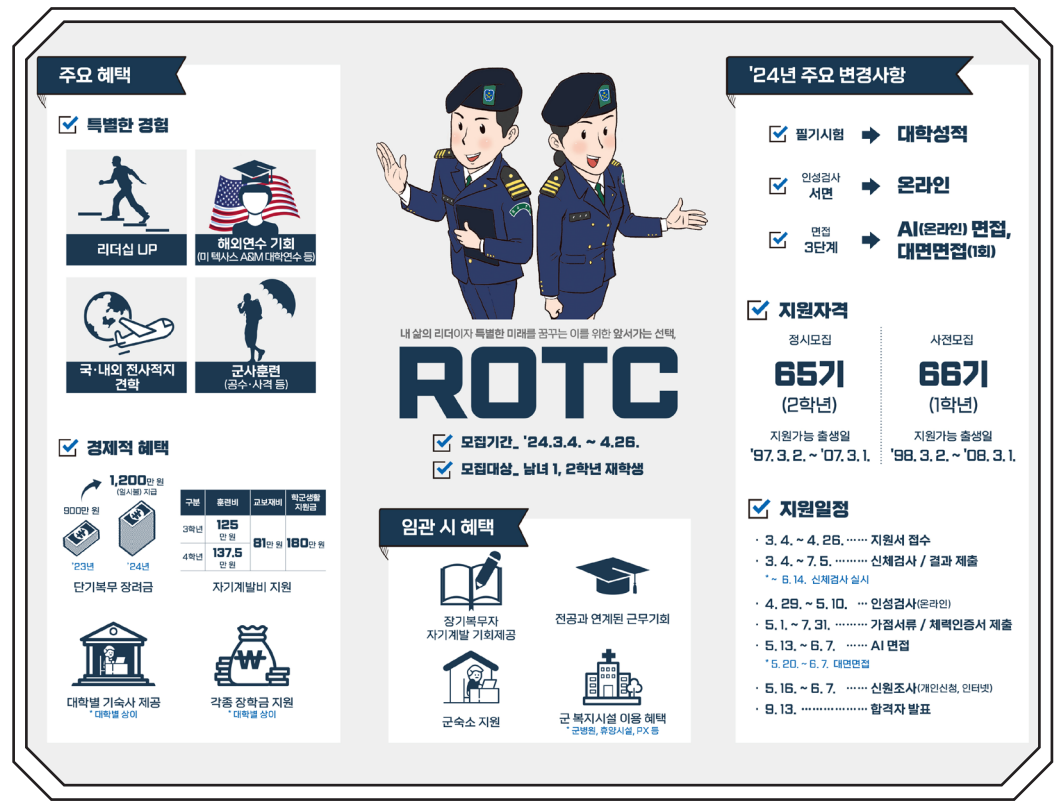
A. 보람찼던 일은 학생들이 입소하기 전에 청소를 싹 해놓으면 학생들이 올 때 그때가 좋다. 얼마 전에는 우리 기숙사가 동계청소년올림픽 숙소로 쓰여서 바닥 청소와 화장실 청소까지 더 깔끔히 다 해놓고 학생들을 맞이했다.

Q.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A. 할 말이야 내가 뭐 있겠냐마는.. 다만 여학생들이 립스틱 묻은 담배꽁초를 솔향관 앞에 함부로 버리지 말았으면 좋겠다. 그것 말고는 여학생이 기숙사를 깔끔하게 잘 써줘서 고맙다.

보람찬 순간에 대한 질문에 학생들이 깨끗한 방에 입소할 때라고 답하던 차영란 직원은, 업무를 하던 와중에도 학생이 취재 요청을 하는 모습에 웃으며 흔쾌히 반겨주던 모습이었다. 언제나 우리의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미화 직원분들과 감사함을 나누는 하루가 되었으면 한다.

김혜미 기자



강원대학교 신문사와 소통하다

KANGWON NEWPAPER 강릉원주대신문 GANGNEUNG-WONJU NEWS

앞서 강원대학교 신문사로부터 '대학 신문사의 미래'를 주제로 다양한 질문을 받아 함께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다. 또한, 우리 대학 신문사 기자들은 지난 1월 〈제31기 기자학교〉에 참석해 경기대, 인천대, 한양대, 경북대 등의 여러 대학 신문사 일원들과 대학언론에 대해 심층적으로 토론을 나누기도 하였다. 이렇듯 대학 신문사 기자들은 학내 신문의 본질을 잃지 않으며 동시에 빛을 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고민의 흔적을 강대신문 한혜원 편집국장의 인터뷰를 통해 함께 나누고자 한다.

Q.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A. 안녕하세요 강대신문 78대 편집국장 한혜원입니다.

Q. 현재 신문사의 규모와 운영 체계는 어떻게 되나요?
A. 강대신문은 취재부, 문화부, 학술부, 기획부 총 4개 부서로 이뤄져 있습니다. 우선 취재부는 학교와 학교 구성원 소식 같은 학내 주요 뉴스를 다룹니다. 기획부는 학내와 사회 전반의 이슈, 사회현상에 관한 일을 기획으로 다루며 학술부는 학내 구성원의 학술적인 성과나 학문적 논의로 기사를 구성합니다. 마지막으로 문화부는 학생들이 공감할 법한 최신 트랜드나 지역 행사 등으로 기사로 작성합니다. 현재 신문사의 기자는 총 12명이며 보통은 기자가 기사를 작성하면 부서 부장, 국장, 간사님, 주간 교수님 순으로 피드백을 거쳐 기사가 발행됩니다.

Q. 강대신문의 발행방식은 어떻게 되나요?
A. 강대신문은 연 21~22회 신문 발행을 합니다. 발행 중 특집호(창간 기념호, 개강호, 개교 기념호)는 지면 기사로 나가며 이외에는 온라인으로 발행됩니다. 특집호는 주제에 따라 면 구성을 달리합니다. 창간 기념호는 강대신문의 창간을 기념하는 신문입니다. 또한, 창간 기념호는 강대신문이 주최하는 강대문화상 수상작이 게재되기에 16면입니다. 개강호는 3월 개강과 9월 개강때 발행되며 보통 8면입니다. 마지막으로 개교 기념호는 1학기 말인 6월 중순에 발행되며 학교와 관련된 특집을 다룹니다. 우리 신문사에서 발행되는 모든 기사는 매주 월요일에 홈페이지에 게시됩니다.

Q. 학생들의 관심도를 높이기 위한 강대신문만의 홍보 방식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나요?
A. 학교 구성원과 친밀한 강대신문이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선 신문이 발행되면 강원대학교 앱과 강대신문 이메일링 서비스 등을 통해 발행 소식을 학교 구성원에게 전달합니다. 또한, 강대신문 공식 SNS 계정을 통해 카드 뉴스를 업로드해서 홍보를 이어갑니다. 이외에도 지면 신문을 직접 배포하는 원초적인 방법부터 연애, 영화, 학교 시설물 등 다양한 칼럼 작성을 통해 차별화된 신문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강대신문만으로 강원대학교 전체 소식을 알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 춘천 캠퍼스 소식은 물론이고 삼척, 도계 캠퍼스의 기사도 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업로드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면 오피니언의 경우, 퀴즈를 넣음으로써 독자 참여를 유도하기도 합니다.

Q. 대학 언론의 위기 중 가장 큰 문제점은 '무관심'이라고 생각되는데, 이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나요?
A. 우선 기획을 선정할 때 모든 부서에 걸쳐서 학생들의 관심사에 맞는 것인지를 살핍니다. 학생들이 관심을 가지는 주제를 1순위로 고려해야 하며, 학생들이 볼 기사인지 학생들과 관련성이 있는 기사인지 기자의 시선에서 따져봅니다. 기자 본인의 관심사도 중요하지만, 학생들의 이목을 끌 수 있는지 항상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또한, 언론이 디지털화되면서 온라인을 통한 홍보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먼저 온라인 기사를 발행할 때 독자들의 가독성을 높이려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기사를 3~4문장으로 요약한 기사를 SNS에 사진과 함께 업로드하고 있습니다. 기사에 대한 노력과 홍보가 함께 이뤄진다면 학생들의 관심을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입니다.

Q. 대학언론의 위기와 미래에 대한 관심도가 높다고 들었습니다. 강원대 학보가 바라본 현재 대학언론은 어떤 상태인가요?
A. 우선 인력 부족으로 인해 기사의 질이 낮아지는 것이 큰 위기입니다. 학생의 신분에서 기자 역할까지 해내다 보니 일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데 항상 고민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기사에 대한 열정이 줄어들고 학업이나 자격증 시험 등 그동안 놓친 자기개발에 몰두하는 것이 더 이득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이유로 하나둘씩 동료들이 떠나가고 한 사람이 도맡는 업무량이 늘어나면서 기사의 질은 점점 낮아집니다.

이렇게 작성된 기사로 학생들의 수요를 이끌어내긴 역부족입니다. 결국 하나의 문제가 다른 유형으로 악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따라서 대학언론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여러 가지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하려고 하기보단 차근차근 진행하다 보면 어느새 다른 문제들도 해결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Q. 과거와 다른 위치에 선 신문사가 이제는 어떤 역할로서 기능해야 한다고 생각하나요?
A. 신문사의 존재 의미는 대학 언론이라는 것입니다. 대학 언론이 가치는 기성 언론이 놓치는 대학생들의 시선에 집중하는 것부터 시작입니다. 기성 언론이 MZ라고 칭하는 이들이 작성하고 소비하는 만큼 우리가 가진 문제의식을 표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또한, 공식 언론기관이라는 점에서 공론장의 역할을 해야 할 것입니다. 커뮤니티와 언론이 다르듯 대학가의 여러 의견을 듣고 보도의 역할을 충실해야 합니다. 강대신문 역시 공론장 역할에서의 신문사, 정보 전달 역할의 신문사, 대학 언론 네트워크 일원의 신문사 등 여러 역할에 최선을 다하며 유일무이한 신문사를 만들어 갈 것입니다.

동계청소년올림픽의 숨은 조력자들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이 성공적으로 끝날 수 있었던 과정에는 숨은 조력자들이 있었다. 올림픽이 개막하기 전 선발되어 다양한 역할을 했던 아르바이트생들이다. 그들은 하우스키핑, 안내데스크, 홀 서비스, 주방 조리 보조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선수들을 케어했다. 현장에서 근무하는 담당자들은 선수와 직접 대면하는 일이다 보니 대회에 지장이 가지 않도록 아르바이트생들에게 선수들의 신경을 건드리는 일이 없도록 신신당부했고, 주방 조리 보조나 홀 서비스 등 음식이 관련된 일에서는 위생에 더 각별한 주의를 요망했다.

각국의 선수들이 경기를 진행하는 동안 머물며 지내게 된 강원도에서는 선수들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다양한 편의시설은 물론 자원봉사자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도 했다. 우리 학교 학생들도 자원봉사와 다양한 아르바이트에 지원했는데, 이번 올림픽의 숨은 조력자들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기 위해 선수촌에서 근무했던 류혜원 학우(중어중문학과 21학번)와 이야기해 보았다.

Q. 본인이 하는 일은 무엇인가요?
A. 선수촌 내 프런트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쉽게 설명하면 호텔 프런트와 흡사한 업무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로 각 나라 선수들의 체크인과 체크아웃을 관리하고, 선수들의 불편사항 응대 및 통역을 하고 있습니다.

Q. 정말 멋진 일이네요. 이 일을 지원하게 된 계기는 무엇이 있을까요?
A. 제가 평소에 영어에 관심이 많다는 것을 알고 있던 지인의 추천을 통해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살면서 올림픽이란 큰 행사에 미디어로만 보던 선수들을 응대할 기회가 이번이 아니면 다시는 찾아오지 않을 것 같았기에 놓치고 쉽지 않았던 면도 컸던 것 같습니다.

Q. 그렇다면 일하면서 힘들었던 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A. 아무래도 전 세계 다양한 나라 사람들이 모이고 문화 차이가 극명해 서로의 이해관계가 충족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또 하우스키핑(객실 청소)이나 C&W(시설) 팀에 대한 불만 사항이 있을 시 프런트가 불편 사항을 접수하고 있는데, 출전 기간 예민한 상태인 선수들이 필요 이상으로 불만을 표출하여 감정이 상하는 일들이 간혹 있었습니다.

Q. 아무래도 그런 점이 가장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좋은 답변들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소감 한마디 전해주실 수 있나요?
A. 올림픽이란 전 세계의 대대적인 행사에서 일할 수 있었던 한 달은 제 대학 생활 중에 절대로 잊지 못할 값진 경험이었습니다. 특히 동계청소년올림픽이었기 때문에 저보다 어린 선수들이 저마다 각자의 목표를 향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나아가고 있는 모습을 한 달 동안 눈앞에서 지켜본 경험만으로도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삶의 추진력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값진 경험을 할 수 있게 해준 혜미 언니 너무 고마워요!

이번 동계올림픽 공식 후원사인 제너시스BBQ 그룹이 올림픽파크에 부스를 마련하며, 우리 학교 학생들이 BBQ 서포터즈에 지원했다. 그중 BBQ 부스 방문 고객 응대를 맡은 전리진 학우(관광경영학과 20학번)를 만나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Q. 안녕하세요, 정말 특별한 일을 맡고 계시는데 서포터즈에 지원하게 된 동기는 무엇인가요?
A. 국제적인 행사에서의 아르바이트를 통해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고 타인의 의견을 경청하며 소통하는 경험을 해보고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Q. 그렇다면 일하면서 힘들었던 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A. 가장 힘들었던 점은 언어 장벽입니다. BBQ 매장으로 방문하는 고객들이 전부 영어만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일어, 스페인어, 불어, 중국어 등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이 찾아오기 때문에, 의사소통의 어려움은 곧 서비스 품질 하락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번역 도구를 활용하여 고객 서비스와 업무 효율성을 유지하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Q. 고객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전리진 학우의 노력이 돋보이는 것 같아요. 그럼 마지막으로 기존의 아르바이트와 다른 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A. 국제적인 행사에서의 아르바이트는 새로운 문화를 경험하고, 넓은 시야를 가질 수 있는 기회입니다. 다양한 언어와 문화를 접하며 소통하고 협력하는 과정에서 소중한 경험을 쌓을 수 있고, 이를 통해 자신의 역량을 향상시키며 국제적인 업무 환경에 대한 이해를 높이게 됩니다. 또한, 글로벌 시장에서 경험을 통해 다양한 진로를 모색할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도전적인 경험을 찾거나 세계 각국의 사람들과 소통하고 싶은 분들은 이러한 일을 해보는 것을 적극적으로 권장합니다.

아르바이트생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이들의 숨은 노력이 있었던 덕분에 올림픽이 성공적으로 끝날 수 있었던 것 같다. 뒤에서 선수들을 케어하는 자원봉사자 단체와 아르바이트생들이 있었기에 선수들이 최고의 컨디션으로 대회를 치를 수 있었다.

김도현 기자

새롭게 시작하는 2024년, 변화하는 강릉원주대

오랜 기다림 끝에 완공된 정문 개선 사업

2024년 새로운 학기가 시작된 만큼 우리 학교도 다양한 변화를 이룬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작년부터 이어진 정문 개선 사업과 학생회관 공사가 완료되어 새로운 모습으로 학생들을 맞이하였다. 정문 개선 사업 추진의 목적은 '1986년 준공되어 37년이 지난 구조물이 구성원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기에 안전 문제를 해결하고 개방적이고 아름다운 캠퍼스를 조성하고자 함'이라고 밝혔다. 큰 구조물을 철거하여 탁 트인 학교의 전경을 볼 수 있었고, 버스정류장 위에는 커다란 LED 전광판이 들어섰다. 버스정류장 이전 및 재설치, 일반 차량과 구분된 버스 전용도로 마련, 사회과학대학 뒤편 계단 공사도 함께 이루어져 학생들의 시설 만족도를 높였다. 또한, 회전교차로 확장과 T자형 교차로 정비로 더 넓고 쾌적한 도로 환경이 조성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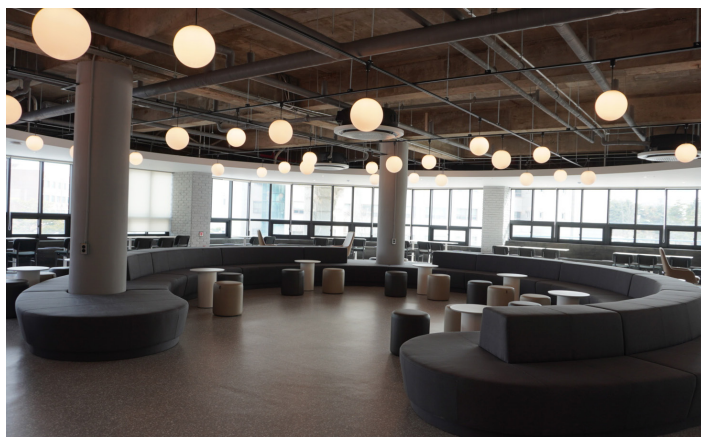
▲완공되어 새롭게 변화한 학교 정문의 모습이다.

학생들을 위한 공간, 학생회관

학생회관 건물(C3)의 전체적인 리모델링이 진행되어 이전보다 쾌적한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1층 학생식당은 더 넓고 쾌적한 모습으로 바뀌며 프랜차이즈 '맘스터치'가 입점하게 되었다. 식사 메뉴도 백반, 중식&찌개, 덮밥&비빔밥 등 다양한 선택지 중 자유롭게 이용 가능하다는 점에서 더 많은 학생이 이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2층 카페테리아도 기존의 노후화된 시설에서 전체적으로 리모델링이 이루어져 새로운 공간으로 찾아왔으며, 헬스장으로 운영되던 4층은 안무 연습실 겸 스튜디오, 음악 연습실 등의 공간으로 활용성을 높였다. 동아리 연습은 물론 일반 학생들도 예약만 하면 누구나 이용 가능한 곳이다.







▲학생회관 4층의 연습실, 2층의 카페테리아 모습이다.

새 학기의 시작을 알리는 2024년 입학식

2024년 신입생 입학식과 오리엔테이션이 2월 28일 해람문화관에서 진행됐다. 신입생들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설렘과 학생회 임원진들, 교직원들의 환대로 따뜻함이 공존하는 현장이었다. 이선우 총장 직무대리의 환영 축사로 시작하여, 대학의 발전 과정 소개, 학교 장학금과 시설 소개, 글로컬 사업 소개, 신입생 입학 허가(국문과 김수현 외 1739명)의 순서로 진행되었다. 신입생 대표로는 반종범 학우(치의예과 24학번)가 나서 학생 명예선언을 하며 강릉원주대 학생으로서의 시작을 알렸다.

입학 성적 최우수자로는 인문대 국어국문학과 김수현, 사회과학대 법학과 구민성, 자연과학대 대기환경과학과 김가람, 생명과학대 수산생명의학과 강서현, 공과대 전자공학반도체공학부 이주혁, 예술체육대학 조형예술디자인학과 김동건, 치과대학 치의예과 반종범 학생이 상장을 받았다.

이어진 오리엔테이션에는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와 권혁열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의 축하 영상, 가수 임재현, 다이나믹 듀오, 소찬휘, 미란이, 학생부처장이자 졸업 동문 치과대학 최종오 교수 등의 축하 영상으로 환영 인사의 시간을 가졌다. 또한, 신입생 학부모들의 축하 영상이 송출되면서 더욱 따뜻한 환대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초청 특강 시간에는 우리 학교 김영미 동문의 "후배에게 들려주고 싶은 도전이란"이라는 주제로 선배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







▲각 단과대학별 회장이 무대에 오른 모습이다.





▲완공된 학생식당에서 교직원들이 식사를 하고있다.



▲교가 제창과 이선우 총장 직무대리의 환영축사가 이어지고 있다.

김혜미 기자







졸업을 축하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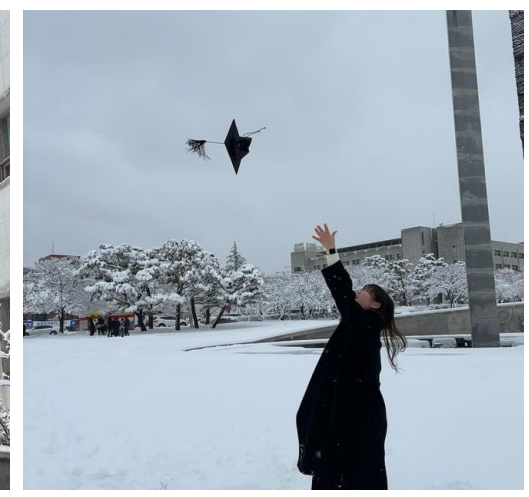
2024년 2월 22일 뜻밖의 대설주의보로 인해 설원 풍경 아래 졸업식이 진행되었다. 오가기 힘들 정도로 많이 쌓인 눈에 통행에 다소 어려움이 있었지만, 졸업생들의 표정은 환한 웃음으로 가득했다.

눈이 쌓인 강릉원주대를 바라보며, 4년 간의 학교 생활에 마침표를 찍은 졸업생 여러분들의 활기찬 미래를 힘껏 응원합니다.









멍석

용(龍), 날아오르다

국어국문학과 황보민경



▲조선민화박물관에서 소장중인 '청룡도', 신비의 동물 청룡이 구름 속에서 날아오르고 있다. 사진=조선민화박물관

올해로 갑진년의 해가 밝았다. 청색의 '갑'과 용을 의미하는 '진'의 결합으로 푸른 용을 뜻하는 갑진년은 다른 어떤 용의 해 중에서도 가장 기운찬 해이다. 그것은 용이 큰 못이나 강, 바다와 같은 물속에서 살며 바람을 일으켜 비를 '물의 신(수신)'으로 여겨져 왔기 때문이다. 동양 신화 속에서도 '청룡'은 신성한 존재이자 힘차고 진취적인 성향의 상징으로 전해져 내려온다. 더욱이 십이지신 중에서는 유일하게 상상 속의 동물이자 가장 신성하게 묘사되고 있다.

하지만 이토록 찬란하고 화려한 청룡도 성장의 고통을 겪기 마련이다. 바다뱀인 이무기가 천년을 수련해야만 한다는 전설은 익히 알고 있을 것이다. 못된 심보를 가진 이무기라면 천년을 수련해도 용이 될 수 없다. 전설 속의 이야기처럼 욕심을 버리고 여의주를 양보하거나, 신비로운 영적 능력으로 선행하여야 한다. 승천하지 못하는 용은 한갓 웅덩이의 이무기로 살아간다. 속담으로도 '용 못 된 이무기'라는 말이 있다. 의리나 인정은 찾아볼 수 없고 심술만 남아있어 남에게 손해만 입히는 사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살면서 저마다 수련 같은 시련을 마주한다. 남에게 베풀거나 배려할 기회, 욕심을 포기해야 할 순간, 일에서 좌절을 겪기까지. 이무기의 천년 수행에 감히 빗대어 이를 수 있을 만큼 다양하고 복잡한 시련들이다. 하지만 곧 용이 승천하듯 성공을 이루리라는 굳은 의지와, 선한 마음씨를 부디 잊지 말도록 하자. 올해는 갑진년, 힘차고 진취적인 청룡의 해이다. 옛 선조들로부터 믿어져 왔던 청룡도 마침 우리의 편이다. 우리가 수많은 시련을 이겨내고 청룡처럼 활기차게 비상하기를 기대한다.

대학생활의 꽃 동아리!



국어국문학과 황보민경